

8월 온라인쇼핑 '역대급'...코로나재확산에 배달음식 83%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장마 등의 영향으로 8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생활용품, 가전·전자·통신기기 구매와 배달음식 등 음식서비스 거래 증가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을 끌어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년 전(11조2786억원)보다 27.5% 증가한 14조38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1년 관련 통계 작성한 이후 최대치다.

전체 소매판매액(39조1893억원) 중 온라인쇼핑 상품 거래액은 11조2145억원으로 통계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소매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년 전(20.9%)보다 7.7%포인트(p) 늘어난 28.6%로 역대 최고를 달성했다.

대형 소매점을 중심으로 일반 대중에게 판매되는 상품의 금액을 뜻하는 '소매판매액'은 유통·소비의 전반적인 동향 파악에 활용된

통계청 조사, 8월 14조3833억 거래...27.5% 증가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쇼핑 상품 거래액 비중 최고
코로나 재확산에 음식서비스, 음·식료품 등 늘어
모바일쇼핑 거래액 9조3265억원 '최고'...27.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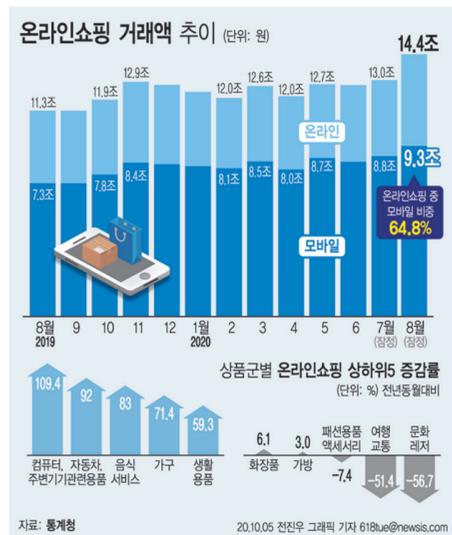
다. 다만 여기에는 여행 및 교통·문화 및 레저·e쿠폰·음식·기타 등 서비스 거래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품군별로 보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식품과 생활 관련 용품 증가가 두드러졌다. 식재료, 건강보조식품 등 거래 증가 영향으로 음·식료품(1조7510억원)과 농·축·수산물(5225억원)이 각각 44.4%, 71.4% 증가하면서 식품(2조2735억원)은 1년 전보다 49.8% 늘었다.

가정 내 생활 증가로 생활필수품, 집 꾸미기 용품, 생활가전 등 거래가 늘어나면서 생활용품(1조3559억원)이 1년 전보다 59.3% 증

가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2121억원·92.0%), 가구(4280억원·56.1%), 애완동물(994억원·31.1%) 등이 모두 증가하면서 생활(2조9555억원)은 전년보다 59.7% 늘었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6704억원)와 가전·전자·통신기기(1조8183억원)도 각각 50.7%, 48.8% 늘면서 가전(2조4887억원)도 전년보다 49.3% 증가했다. 도서(3074억원)와 패션(3조5078억원)도 각각 36.2%, 11.6% 늘었다. 서비스 거래액은 3조



자료: 통계청 2010.05 전년 동기 대비 기준 618blue@newsis.com

했다. 배달음식 등의 증가로 음식서비스(1조 6730억원)가 1년 전보다 83.0%나 급증했지만 외부활동 자제로 영화관람, 여행 및 대중교통 이용 등이 감소하면서 여행 및 교통서비스(7895억원)와 문화 및 레저서비스(854억원) 등이 각각 51.4%, 56.7%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양동희 서비스업동향과장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장마 등으로 실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음식서비스, 가전·전자·통신기기, 음식료품 거래가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전년보다 27.8% 증가한 9조326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 비중은 64.8%로 전년 동월 대비(64.7%)보다 0.1%p 상승했다. 음식서비스(94.4%), 가방(78.4%), 아동·유아용품(75.4%) 등에서 모바일쇼핑 비중이 높았다.

운영형태별로 보면 온라인몰 거래액은 10조 8537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9% 증가했으나 온·오프라인병행몰 거래액은 3조5296억원으로 전년보다 4.2% 감소했다.

신봉우기자

추석연휴 북적였던 국내 공항...104만명이 비행기 탔다

작년 추석연휴 보다 올해 승객 1만4048명 더 많아



을 추석 연휴기간 전국 14개 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104만여명으로 집계 됐다.

올 추석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우려해 고향방문을 자제해 달라 당부했지만, 고향 대신 이른바 추캉스(추석+바캉스)를 떠난 인파가 많아지면서 공항 이용객도 덩달아 증가했다.

5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추석연휴에 들어간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여섯날 김포와, 제주, 김해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104만5402명으로 집계 됐다.

올 추석연휴 국내선 이용객수는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이전인 작년 추석연휴(9월11~15일)

103만1354명과 비교할때 1만4048명이 더 많은 것이다.

연휴기간 국내선 이용객을 일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29일과 30일 각각 18만2699명과 18만 9373명이 국내공항을 이용했다.

또 이달 1일 14만4324명, 2일 15만9655명, 3일 16만7195명이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했다. 특히 연휴 마지막 날인 4일에는 국내선을 이용한 승객이 20만2156명을 기록해 연휴 중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제주공항이 43만530명으로 이용객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김포 33만3160명, 김해 12만2083명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올 추석연휴에도 국제선이 집중된 인

천국제공항의 상황은 좀처럼 호전되지 않고 있다.

이 기간 인천공항의 총 이용객은 3만5263명으로 작년 추석연휴 89만7308명과 비교해 96%가 감소했다.

일별로는 지난달 29일과 30일 인천공항 이용객은 각각 6496과 6688명이었으며, 이달 1일 이용객은 5551명, 2일 6398명, 3일 4525명 4일 5605명을 기록해 하루 평균 승객은 5877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추석 연휴기간 코로나 19에 감염된 확진자는 31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연휴동안 총 3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하루 평균 62명 수준이다. 주로 수도권과 부산, 경북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이번 추석연휴 동안 작년에 비해 고속도로는 86%, 고속버스는 45%, 철도는 43%로 이용률이 크게 줄었다"면서도 "평소보다 지역 간 이동과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긴장의 끈을 놓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박 장관은 오는 11일까지는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하며 "고향이나 여행지를 방문하신 분들은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자녀들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증상 여부도 전화 등으로 꼭 확인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전국 전셋값, 5년5개월 새 최고 상승률...월세도 덩달아 급등

전세 품귀에 수도권 월세 전환 수요 늘어

지난 달 전국 전셋값이 0.53% 올라, 최근 5년5개월 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학군 지역이나 역세권 등 주거 환경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폭이 컸다.

임대차2법 시행에 따른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월세도 덩달아 오름세다.

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달 14일 기준 전국 월간 주택종합(공동주택·다세대연립·단독) 전세가격은 0.53% 올라, 전월(0.44%) 대비 상승률이 커졌다.

올 들어 최고 상승률이며, 지난 2015년 4월(0.59%) 이후 전셋값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전셋값이 0.65% 올

라, 전월(0.54%)보다 상승이 확대됐다.

서울은 정비사업 이주수요 및 학군 수요가 꾸준한 지역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승률은 0.41%로, 전월(0.43%)보다 축소됐다.

서초구(0.63%), 송파구(0.59%), 강남구(0.56%), 노원구(0.49%) 등 서울의 대표 학군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 폭이 크고, 강동구(0.54%), 동대문구(0.49%)나 마포구(0.44%), 강서구(0.37%), 구로구(0.37%) 등도 중저가 전셋집 위주로 상승폭이 커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권 전세난은 수도권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인천(0.17→0.52%), 경기(0.71→0.85%)는 개발 기대감이 있거나 교통 등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 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지방도 9월 전셋값 상승률이 전월 0.34% 대비 확대된 0.41%를 기록했다.

김미희기자

행정 수도 이전 기대감이 높은 세종시 전셋값이 5.69%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울산(1.40%), 대전(1.10%) 등 지역에서도 오름폭이 컸다. 전국에서 제주(-0.10%)만 하락세다.

전세시장 불안을 틈타 월세 시장도 상승세다.

전국 월간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13% 올라 관련 통계 조사를 시작한 2015년 7월 이래 가장 상승률이 컸다.

수도권 월세 상승률은 0.17%로, 전월(0.13%) 대비 커졌다. 서울은 0.10%, 경기는 0.23% 각각 올랐다.

감정원 관계자는 "서울은 전세가격 상승과 동반해 주거 및 교통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경기는 전세매물 부족 영향으로 월세 수요 증가하며 개발호재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세"라고 설명했다.

전셋값 상승폭이 큰 세종(1.08%), 울산(0.43%) 등 지역은 월세 상승 폭도 컸다.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 이달 분양 예정

전라남도 순천시 조곡동 634번지 일원에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가 들어선다. 용당동에 공급하여 완판을 달성한 'e편한세상 순천'에 이은 후속단지로서 도심권으로 빠르게 통하는 광역교통망에 동천과 봉화산을 내 집 정원처럼 누릴 수 있어 도심 속 에코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 단지는 순천 최초로 대립산업만의 특화설계가 적용되고 기존 분양단지 대비 다양한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예비청약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 풍부한 미래가치에 교통호재까지 누린다

봉화산 자락에 위치한 사업지는 최근 지역 내 다수의 신규공급이 이뤄진 용당동, 서면, 가곡권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생활 여건 개선 및 미래가치가 기대된다. 2023년 개표되는 국제정원바람비에 맞춰 진행되는 순천 원도심권 도시재생사업과 더불어 앞으로 사업지 일대가 순천 북구권의 중심거점으로 탈바꿈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의 수혜도 예상된다.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는 원도심과 신도심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순천 어느 곳이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단지 인근 봉화로, 중앙로, 백강로, 삼산로 등을 통해 순천 주요업무지구로의 출퇴근이 편리하다. 순천IC도 가까이 광양, 여수 등 인근 도시로 접근성이 우수하며 순천역과 순천터미널은 차량으로 10분대 거리여서 전국으로 이동도 수월하다.

순천시에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단지 앞 4차선 도로는 용당동부터 이어지며 원도심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전남도의 사업간접지원(SOC) 역점사업인 경전선 광주송정역-순천역 구간의 단선전철 용역 예비타당성이 작년에 통과되어 올해부터 기본계획을 착수했으며 이 구간이 개통되면 향후 이 일대의 부동산 가치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새로운 길은 타지역으로의 이동성을 향상시키고 원활한 물적교류와 타지역으로의 인프라 혜택을 가져다준다"며, "결과적으로 교통호재는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집값까지 상승시키는 요

소로 작용한다"고 전했다.

■ 신뢰받는 브랜드타운, 쾌적한 주거환경까지

국내 최초로 아파트 브랜드 'e편한세상'을 론칭한 대립산업은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대상 5년 연속 선정, 국가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살기 좋은 아파트 총 12회 수상,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총 8회 수상 등 화려한 수상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명실상부 대표 건설업체다. 올해 용당동 'e편한세상 순천'이 대한민국 대표아파트 시상식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하며 다시 한번 브랜드파워를 입증했다.

이러한 기대 속에 분양을 시작하는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는 봉화산과 동천 수변공원의 수려한 풍광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주거환경으로 도심에서 누리는 자연친화적 생활이 가능하다. 전 세대 남동, 남서향 위주의 배치로 채광 및 통풍을 극대화하고 탁 트인 개방감을 선사한다. 층수의 변화를 통해 매력적인 스카이라인을 선보인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5층, 10개동, 전용면적 84~112㎡ 총 63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84A㎡ 233가구 ▲84B㎡ 357가구 ▲84C㎡ 123가구 ▲112A㎡ 168가구 ▲112B㎡ 67가구 ▲110P㎡ 27가구 ▲110PB㎡ 37가구 ▲110PC㎡ 17가구는 단지 전체의 품격을 높이는 펜트하우스로 선보인다.

순천 최초로 'C2하우스' 설계방식을 적용한다. C2하우스는 대립산업만의 특화 설계방식으로 내력 벽체를 최소화하여 세대구분 및 개인적 성향,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자유롭게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수납이 극대화된 대형팬트리 제공 및 합리적인 주거 동선을 제시하여 입주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유해물질을 차단하는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과 층간 소음 감소 및 난방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60mm 바닥차음재까지 적용함으로써 수년간 전국에서 명품 단지를 공급해오며 두터운 신뢰도를 쌓아온 e편한세상의 브랜드 가치를 또 한 번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재개발부김승호기자